

SPRING 2010

또 하나의 Vol. 50

www.plankorea.or.kr

나 우리



Plan Korea

행복을 주는 사람!!

안녕하세요, 플랜가족 여러분.

배우 김남길입니다.

따스해지는 날씨만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많은 사랑을 주신 드리아 '선덕여왕'의 종영 후, 저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과 10월, 연이은 강진과 지진 해일로 폐허가 된 수마트라 섬... 세 달이 지난 2010년 1월, 그곳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아이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지, 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 곳에 도착하였을 때, 무너진 건물보다도 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지진으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상처받은 어린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참 뛰어 놀아야 하는 어린 나이에 어른들도 견뎌내기 힘든 지진의 공포를 아이들이 겪고 있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아픔을 극복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면 내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을까' 모든 일점 내내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거듭될수록 제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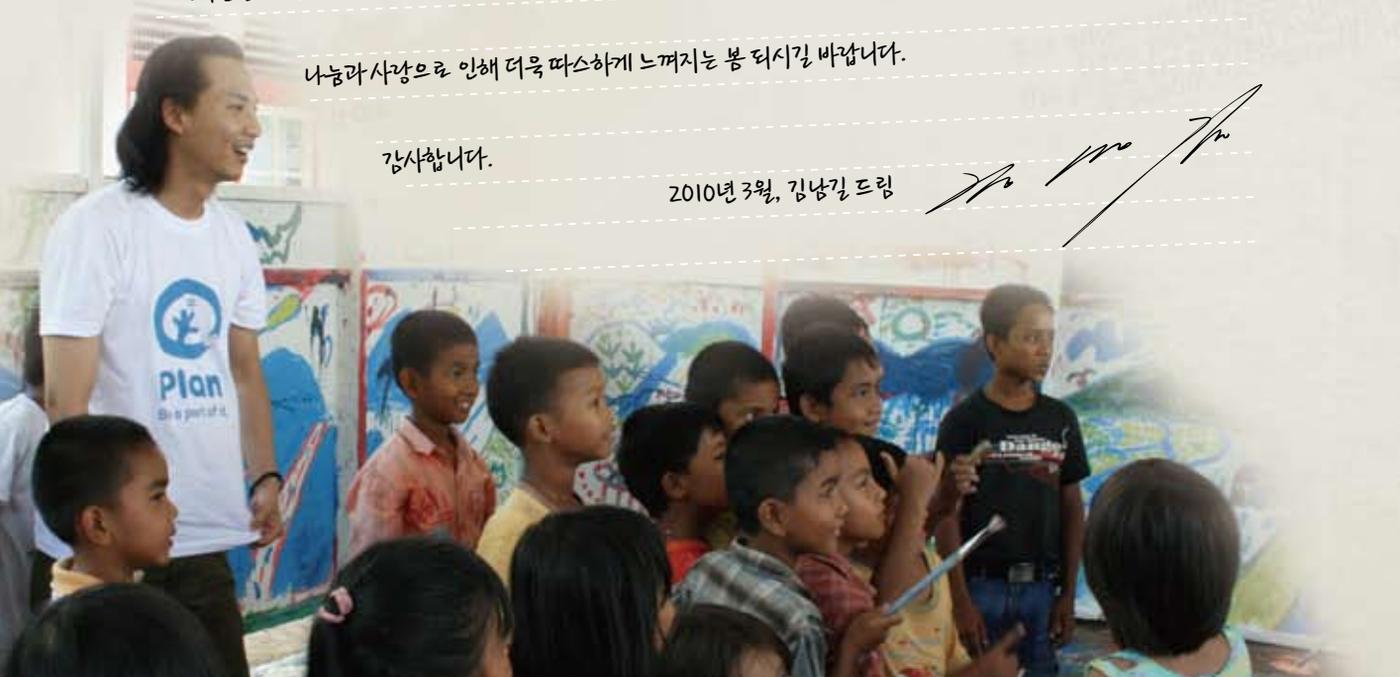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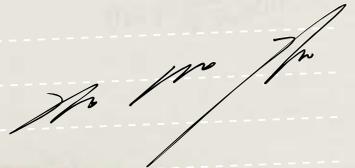
다만, 이 아이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누군가가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아이들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아픔과 상처를 입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미 그러한 믿음과 사랑을 전해주고 계시는 많은 플랜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에 비해서 그 출발은 늦었지만, 저도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러한 따스함을 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나눔과 사랑으로 인해 더욱 따스하게 느껴지는 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3월, 김남길 드림



또 하나의 Vol. 50

www.plankorea.or.kr

나 우리



플랜은 아이티 지진 발생 후 신속한 초기대응을 시작으로, 지진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아이티 어린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플랜의 놀이지료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티 어린이들)

‘또 하나의 나 우리’는 플랜코리아가 전하는 아이들의 소중한 꿈입니다.

플랜은 73년 전통의 국제아동후원단체로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기구입니다. 세계 최대 개발원조단체인 플랜은 비종교, 비정치, 비정부의 국제기구로서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1개국을 후원국으로 하여 전세계 48개국 150만 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CONTENTS

- 02 행복을 주는 사람 • 배우 김남길
- 04 지구촌을 간다 I • 플랜코리아 송민희 주임
- 06 지구촌을 간다 II • 플랜코리아 박제홍 부장
- 08 지구촌을 간다 III • 플랜코리아 박미경 주임 . 임윤경
- 10 우리는 플랜가족 • 후원자 박영시
- 12 플랜, 세계를 걸어간다 • 인도
- 13 아이티 지진 발생 한 달, 플랜의 활동
- 14 플랜캠페인 • Because I am a Girl
- 16 나눔의 행복 • 조이맥스
- 18 플랜 홍보대사 • 매너티
- 플랜 NEWS**
- 19 플랜코리아 소식
- 20 플랜 지구촌 소식
- 21 플랜과 함께하는 분들
 - 긴급구호성금, 일시후원금, 모금함, THE 좋은선물, 특별후원금, 신규 어린이 후원자



배우 김남길, 아이들의 아픔을 사랑으로 녹이다.

배우 김남길은 지난 1월, 플랜코리아와 함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지진 복구 현장을 찾아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하였다. 지진이 발생한 지 3개월, 수마트라는 지진의 상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상처 입은 아이들..

지진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다. 도시 곳곳에서는 복구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거리는 건설현장에서의 망치 소리와 중장비 소리로 울려 퍼진다.

하지만 아직도 붕괴된 건물이 즐비하다. 지진 피해 건물의 70% 이상이 복구되지 못한 채 그날의 상처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집을 복구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 옆에 천막을 치고 살고 있다. 어린이들은 지진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심리적인 충격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매일 그날의 아픔과 상처를 대면하게 되고 그것을 되새길 수 밖에 없다. 매일 아침 무너진 건물 더미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붕괴된 건물 옆에서 식사를 하며 친구들과 뛰어 논다. 그리고 그대로 방치된 잔해를 보며 하루를 마친다. 아이들은 지진의 참혹한 현장에 적응이 된 듯 하다. 그 옆에서 마냥 신나게 웃고 뛰노는 아이들을 보니 상처가 치유된 듯 하다.

하지만 김남길이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희망과 용기를 가져라.” 는 말을 하자 ‘지진’ 이라는 단어에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는지 밝았던 아이들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진다. 그러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그 아픔을 어루만지다.

김남길은 붕괴된 건물 잔해의 상처보다 더 깊은 아이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를 보았다. 그는 아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싶어했다. 지진의 두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닫힌 아이들이 맘껏 웃을 수 있도록 그는 기꺼이 광대가 되었다.

때로는 어느 개그프로에서나 나올법한 요상한 표정과 몸 개그로,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공을 차며 뛰어 놀면서, 때로는 먼저 내민 손으로... 그는 상처받은 아이들이 잠시라도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의 따뜻한 마음이 통해서였을까... 김남길과 함께 뛰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은 노는 동안 만큼은 지진이라는 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듯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와 눈빛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닫혀진 아이들의 마음도 조금씩 열린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 소리가 온 마을을 뒤덮는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김남길의 눈빛 속에서 사랑과 따뜻함을 보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내가 이곳에서 하고 싶었던 것은 다 함께 도와줄 수 있다는 마음,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나눠주고 싶었다.”

김남길은 아이들에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고 싶다고 고백했다. 그런 믿음이 아이들에게 아픔을 극복하고, 희망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준다고 생각했다.

학교를 방문했을 때도, 붕괴된 건물을 수리할 때도, 피해주민에게 구호물품을 나누어줄 때도, 그는 항상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했다.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진 않을까,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일까...’ 매 일정마다 고민하며, 아이들을 위한 선택을 하고 싶어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붕괴된 건물 보다 아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어루만져주고 싶어하는 그는 가슴 따뜻한 사람이다. ☺

〈사진제공= 안현민〉 〈글= 플랜코리아 송민희 주임〉



Because I am a Girl in Nepal...

네팔의 치안문제로 인해 여러 번 연기를 거듭하던 네팔행이 시작된 것은 2010년 1월 18일이었다. 네팔이라는 나라는 인도와 접경에 있는 국가로 힌두교 등의 종교뿐만 아니라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낸 신분의 문제, 그리고 많은 물품들이나 인적교류 등을 통한 경제적인 문제까지 인도와 많이 닮아 있다. 특히 인도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보다는 문제점들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나 할까

이번 방문은 네팔 내에서의 어린이들, 특히 여자아이들이나 여성이 겪어야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재 플랜인터내셔널에서 전세계적으로 벌이고 있는 캠페인인 “**Because I am a Girl**”의 일환으로 빈곤국가 여성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소개함으로써 이에 대해 지원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의 하나이다.

유명 여성잡지인 보그(VOGUE)지에서 선뜻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지면을 할애해주셨고, 유명사진작가인 조선희씨가 화보 촬영에 임해주셨으며, 방송 재개를 앞두고 있는 이미연씨가 캠페인을 홍보하기 위한 얼굴 역할을 담당해주셔서 화려한 방문팀이 꾸러지게 되었다.

여섯 시간의 비행으로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한 우리는 다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네팔 동남부의 순사리 지역으

로 향했다. 순사리 지역의 이타하리라는 곳은 인도와 국경지대로 인도와의 출입이 자유로운 지역이다. 여느 빈곤 국가와 마찬가지로 교육에서 소외되어 가정의 경제를 맡고 있는 어린 여아들은 주로 농사나 목축 같은 일을 돕다가 도시지역의 다른 가정에서 가정부로서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가정부로서 일하던 도중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캐빈레스토랑이라는 형태의 술집에서 일을 하면서 매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처음 만난 수니타(가명, 14세) 역시 어린 나이에 멧모르고 일하기 시작한 술집에서 매춘을 강요받게 되었고, 옮겨간 다른 술집에서도 매춘을 강요 받아, 경찰들의 도움으로 플랜 네팔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인도되어 여기서 재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활기차고 우리나라 어린 여자아이들과 별다른 것 없는 어린 아이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얘기해달라고 하자, 그 아이는 눈물만 한참을 흘리면서 입을 열지 못했다. 결국 주변을 다 물리고 단 두 사람만이 남자, 수니타는 자신이 겪어야 했던 일들, 가난 때문에 흩어진 가족들의 일상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함께 얘기를 듣던 이미연씨 역시 아이의 사연에 대꾸를 하지 못한 채, 그냥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또한 테이트를 하자며 불러내어 집단 강간을 당한 여자의 이야기, 15살의 나이에 시집을 가서 강제로 낙태를 당하고 시집 식구들에게 학대를 당하다가 돌아온 여자의 이야기, 아버지가 자신을 다른 집의 가정부로 팔아버려 어려서부터 가정부일을 하다가 매춘을 하게 된 여자의 이야기 등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들이 계속되었다. 그들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겪을 수 밖에 없었고, 또 여전히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처절하게 자신과의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겪을 수 밖에 없었고, 또 여전히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처절하게 자신과의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인도와의 왕래가 많아지면서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이 증가하자 이렇게 매춘은 더욱 늘어나고 있었고, 지금도 많은 어린 여자들이 여전히 매춘을 강요 당한 채, 또한 조혼의 풍습 하에서 상처를 입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대부분의 빈곤국에서 경제의 문제를 위해 많은 여자아이들이 희생되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문화적인 관습과 지리적인 환경이 더해지면서 이곳의 여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많은 상처를 내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에는 지역 정부 및 플랜과 같은 NGO들의 노력으로 이들을 위한 재활원과 교육기관이 생겨나고 캠페인을 통한 인권의 옹호 사업이 펼쳐지고는 있지만 아직 이들의 생활을 바꾸기에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희생들이 요구될 것이다.

이곳에서 이들의 문제는 히말라야와 같이 거대하고 압도적인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조그마한 관심과 지원이, 그리고 이러한 캠페인의 노력들이 조금씩 결실을 맺어가면서 이러한 문제들도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자연과 여자로서 겪어야 하는 이들의 아픔이 등호처럼 느껴졌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느껴져서 더욱 마음이 아픈 방문이 아니었나 싶다. 🇰🇷

<글= 플랜코리아 박제홍 부장>

2010년 플랜코리아 후원자와 함께하는...

베트남 후원 아동 및 지역 방문기

후원아동들을 향해 소중히 간직해 온 사랑을 직접 전하는 첫 발걸음, 그 첫 발걸음은 이웃나라이면서 플랜을 통해 가장 많은 후원자님들께서 후원하고 계시는 베트남에서 시작되었다.

실례는 첫 발걸음을 함께 내디딜 16명의 후원자님들의 명단을 보았을 땐 조금의 걱정이 없었다. 1999년생 초등학생부터 1939년생 할아버지 후원자님까지 다양한 연령이었을 뿐 아니라 부부, 모녀, 부자 등의 여러 관계가 섞여있는 열 여섯 분의 후원자님들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통해 플랜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잘 안내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였다. 하지만 후원자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괜한 걱정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미 후원자님들은 플랜을 통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여러 해 동안 후원해 오시면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그 목적으로 인해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플랜이라는 이름 아래 모두 하나가 되어 있었다.

이곳을 통해 함께 해 주신 후원자님들께는 소중한 추억을 되돌아 보는 기회를, 앞으로 후원 아동 방문에 참여하실 후원자님들께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첫째 날

어색한 첫 만남과 기대와 설렘의 시작

공항에서의 첫 만남. 한 분 한 분 따뜻하게 웃으며 다가오시는 후원자님들 덕분에 긴장된 마음이 큰 설렘으로 변해갔다. 첫 만남에 서먹서먹해 하시던 후원자님들과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결해주었던 현수막을 들고 사진촬영을 시작으로 3박 5일간의 베트남 후원 아동 및 지역 방문이 시작되었다.

5시간의 비행에 걸쳐 베트남 시각으로 밤 11시가 다 되어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도착하였다. 공항의 열악한 상황 탓에 짐을 찾는 데에만 한 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후원자님들은 불평은커녕 서로의 짐이 나오기를 기다려주셨다. 호텔에 도착하여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첫날 하루가 마무리 되었다.

둘째 날

타이응웬 플랜 사무실 방문 및 마을 축제 참여와 정양화, 조영례 후원자님의 후원 아동 방문

아침 7시. 베트남의 주요 교통수단인 오토바이 소리로 잠이 깨어 하루 일정이 시작 되었다. 9시부터 두 팀으로 나뉘어져 열 네 분의 후원자님들은 타이응웬 플랜사무실 및 마을방문을 진행하고, 다른 두 분(정양화, 조영례 후원자님)은 박장 플랜 사무실을 통해 후원을 받고 있는 후원 아동 방문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플랜 베트남에서 Ms. Mai가 우리의 일정을 함께 해주기 위해 하노이에서부터 함께 타이응웬으로 출발했다. 타이응웬에서 우리가 방문할 마을들은 도로 사정이 좋지 않고 큰 버스가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7인승과 12인승 승합차 세 대에 나누어 타고 하노이를 출발 했다.

두 시간 반 가량을 달려 도착한 타이응웬 사무실. 따뜻한 차와 함께 타이응웬 지역 총 담당자인 Mr. Bui Huy가 우리를 친절하게 맞아 주었다. 플랜 타이응웬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후원 받는 아동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숙소로 이동해 짐을 풀고 식사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마을 축제에 선물할 돼지 고기를 한아름 들고 100여 명이 모여 사는 소수민족 마을로 출발했다. 1시간 10분 가량의 이동 시간 중 대부분이 오토바이를 만나면 비켜주어야 하는 외길로 된 구비구비 산길이었다.

1년에 한 번, 마을의 수확에 대해 감사하며 축하하기 위한 마을 축제라고 했다. 인근 마을에서 모인 사람들까지 수 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전통 놀이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



대표로 마을에 돼지 고기를 선물하시는 이준래 후원자님



마을 축제에 모인 사람들



플랜코리아 후원자와 함께하는

베트남 후원 아동 및 지역 방문

일시: 2010년 2월 22일~26일

장소: 베트남 타이응웬

났다. 외부 사람들과의 만남이 거의 없는 그들은 우리의 이동 루트대로 우르르 따라오기도 하고, 서로 앞다투어 우리와 함께 사진 찍자고 하는 등 그들에게 있어 우리의 방문이 소위 연예인의 방문을 방불케 하는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상상 이상의 환대와 대접이었다.

그들의 융숭한 대접을 뒤로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후원자님들의 눈과 마음엔 우리가 그들에게 주었던 것보다 더 많이 마을 사람들에게 받은 관심과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고 있었다.

셋째 날

플랜의 프로젝트 방문 및 백순현 후원자님의 후원 아동 방문

이동 방문을 계획하신 백순현 후원자님을 제외한 다른 후원자님들과 플랜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 초등학교를 찾았다. 수업 공간이 부족하여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수업을 해야 했던 학교에, 플랜의 지원으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 공사현장이었다. 이번 참여하신 후원자 분들의 후원으로 건물을 짓는데 사용할 안전모, 장화, 장갑 및 삽 등의 장비를 후원하고, 후원자님들께서 정성으로 준비해 오신 학용품들을 학교에 전달하였다.

후원자님들 모두 장비를 갖추고 공사 현장에 뛰어들어 작업을 도왔다. 땀이 범벅이 되도록 힘든 작업이었지만, 후원자님들 모두 웃는 얼굴로 이 곳에서 공부할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작업에 참여 해주셨다. 작업을 하는 우리를 둘러싸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던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기 전에 학교 옆에 있는 보건소에 들렀다. 보건소 역시 2006년부터 플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다. 보건소가 생기면서 의료진과 의료시설이 보충되었고, 무엇보다도 시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후원자님들께서 정성으로 동참해 주고 계신 후원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으며 모두의 작은 정성이 꼭 쓰여야 할 곳에 쓰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감사했다.

마지막 날

하롱베이 투어 및 다음을 기약하는 행복한 헤어짐

마지막 날은 플랜의 든든한 지원자이신 후원자님들을 위한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베트남 북부의 관광명소 중 하나인 하롱베이에 도착하여 배를 타면서 신선한 해산물도 맛보고, 다시 하노이로 돌아와 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수상 인형극도 관람하였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소감을 나누면서 성격도 모습도 모두 다른 후원자님들의 마음이 아동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라는 목적으로 인해 플랜에서 하나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더욱이 짧은 일정 속에 이동거리도 많아서 피곤 하셨을 텐데 한 분도 아프신 분 없이 준비된 일정에 충실히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학교 건축 현장에서 땀 흘리고 난 후 함께

다음을 기약하는 행복한 헤어짐

해외의 아동만을 지원하고 있는 플랜이기에 후원아동을 방문하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아서 한 달의 3만 원이라는 돈이 후원 아동과 그 지역에 얼마나 큰 힘이 될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보니 일상 속에서 쉽게 사용하는 3만 원이 현지의 아동들에게는 꿈이 되고 큰 행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될 아동과의 교류 속에서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란다.

<글= 플랜코리아 박미경 주임 . 임윤경>

“나누는 것보다 얻어 가는 것이 더 많아 너무 감사합니다.”

- 정양화, 조영례 후원자님의 후원 아동 방문



정양화, 조영례 후원자님께서 5년간 사랑으로 후원해 주고 계신 후원아동인 응응은 왜소해 보이긴 했지만 예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축구공을 선물로 꺼내자 후원자님께 달려와 꼭 끌어안아 감사의 표시를 하는 응응과 후원자님 사이에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플랜의 울타리 안에서 끈끈한 정으로 연결된 그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사진 속에서만 만나오던 내 아이를 직접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 백순현 후원자님의 후원 아동 방문

백순현 후원자님께서 8년간 후원해 주고 계신 농은 수줍음이 많지만 똑똑한 아이이다. 학교까지 매일 자전거로 1시간 거리를 오가며 한국어를 배워 후원자님과 직접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후원자님의 가족과 아이의 가족이 한 가족이 되는 느낌이었다. 헤어지면서 꼭 안아 주시는 후원자님의 사랑이 후원아동에게 충분히 전해졌으리라 생각된다.



공사 현장에서 열심히 몸으로 봉사하는 모습

지역 학교에 준비해 간 학용품 전달하는 모습

Plan Family Interview

후원자 박영시

후원자 박영시님에게
2010년의 시작은
그 누구보다도 남달랐다.
2010년 1월, 7년이 넘게
후원한 베트남 소년,
Vi Van Them(이하 템)을 방문하여
졸업식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아동 후원 및 방문에 관심을
갖고 계실 분들을 대신하여 플랜이
박영시 후원자님을 만나보았다.

1. 박영시 후원자님께서는 플랜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대학에 입학 했을 때, 뭔가 남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궁리하며 대학생살을 막 시작하고 있었는데, 무심코 구입했던 어떤 책 안에 들어있던 플랜에 관한 작은 전단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걸 보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고 후원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2. 템 어린이의 자료를 처음 받아보셨을 때는 어떠셨나요?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어요. 내가 이 아이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 의심해 보기도 했었구요. 사진을 처음 받아보고는 '참 귀엽다, 눈매가 참 또렷하네.' 생각했었던 기억이 나요. 만약에 만날 수 있다면 안아주면 내 가슴팍에 꼭 들어올 것 같더라는 생각을 했었죠.

3. 7년이 넘게 템을 후원하셨는데 기억나는 에피소드들이 있으신가요?

보통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용돈으로 다 썼었어요. 하지만 군입대를 앞두고 템이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 있는 2년 동안 신경을 잘 쓰지 못하더라도 탈없이 후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입대하기 전에 2년치의 후원금을 마련해서 통장에 입금시켜 놓았던 기억이 나네요. 학생시절 72만 원은 그리 적은 액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4. 템의 돌업식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다면 말씀해주세요.

그저 보고 싶었어요. 템이 저를 한 번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자기집 마당을 그려서 보내 준 적이 있어요. 꼭 가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몇 년이 흐른 후에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죠. 베트남에 가야지 하면서 한 해 두 해 미뤘오던 것이 이제서야 찾아가보게 된 거예요. 사실, 플랜코리아에 방문신청을 한 후에야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해만 더 미뤘더라면 후회할 뻔 했죠.



5. 템을 처음 만나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그 동안 커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봐와서 그런지 먼 발치에 서있는 모습을 보고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너무 반가운데 무슨 말부터 해야 할 지 몰랐죠. 템 역시 마찬가지였구요. 처음엔 잘 지내냐, 건강하냐 등 어색한 질문만 오고 갔었어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템 역시 나만큼이나 반가워하고 있고 나만큼이나 표현이 서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6. 돌업식을 참관하면서 느끼셨던 점이 있으신다면 말씀해주세요.

처음 받아봤던 사진 속의 꼬마는 다 커서 청년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다 자란 템과 가족들의 웃음을 보니 월 3만 원의 돈과 주고받았던 편지들이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이나 될까 하던 생각은 어리석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작은 나눔으로 인한 그 웃음들은 계량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님을 절실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참 잘한 일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7. 플랜의 사업장을 직접 둘러보시기 전에는 어떤 점들이 궁금하셨나요?

지역사회의 생활 환경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었어요. 플랜의 사업으로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는지도요. 후원금으로 모인 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8. 사업장을 둘러보신 느낌은 어떠셨나요?

지역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구요. 예를 들면, 플랜이 들어선 후 유치원에 지원을 하여 4살 전후의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더 쉽게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템의 어린 조카들도 제가 방문했던 유치원에 다닌다고 하더군요. 의료지원은 정밀한 건강검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검진을 받고 문제가 있을 경우 큰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민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9. 아동 후원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요?

베트남에 있는 템과는 후원관계가 끝났지만 네팔에 있는 귀여운 여자아이와 후원관계를 지속해 나가게 되었어요 (박영시 후원자님은 2월, 네팔의 여자어린이 후원을 시작하였다). 템과는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될지 기약할 수 없지만, 언제가는 다시 볼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템의 사진을 처음 받았던 8년 전에도 막연하게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큰 기쁨을 주었듯이요.

플랜, 세계를 걸어 가다.

플랜의 48개 후원국은 다양한 문화와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플랜, 세계를 걸어가다.' 를 통해 후원국과 플랜의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노동시장을 가진 나라, 인도

인도의 기초 정보

국가명 : 인도 공화국

수도 : 뉴델리(New Delhi)

인구 : 약 11억 4,799만 6천 명 (세계 2위)

종교 : 힌두교 80.5%, 이슬람교 13.4%, 기타 5.4%

언어 : 힌디어 45%, 벵골어 8% 사용



교육제도 : 유치원 2년(3-5세), 초등학교 1~5년(6-10세), 중학교 6년(11-15세), 고등학교 3년(16-18세), 대학/대학원

문맹률 : 61%

평균수명 : 약 66세

독립기념일 : 1947.8.15

시차 : 한국이 3시간 30분 빠름

인도의 현실

인도는 세계에서 아동의 노동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있고, 노동착취, 아동인신매매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겨우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방지 운동이 활발해져 여성과 아동 보호라는 개념이 확립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는 에이즈 감염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플랜 인도는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방법을 통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에이즈 감염 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커뮤니티 단위로 예방 및 감염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인도의 교육 환경

인도 정부는 초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지만, 저소득계층에게 있어 학교에 다닐 연령대의 아이들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보내기보다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없거나 도중에 자퇴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인도에서 플랜이 하는 일

바라나시

- ▶ 산모와 영아를 위한 의료서비스
- ▶ 영유아 보호 및 보육센터 건설
- ▶ 아이들의 지역개발 프로그램 참여

룬카란시르

- ▶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활성화
- ▶ 건강검진센터 건설 및 의료서비스 구축

부비네스와르

- ▶ 농업기술교육
- ▶ 출생신고 장려
- ▶ 아동 인권 및 보호에 관한 인식 증진
- ▶ 말라리아, 에이즈 및 성과 건강에 관한 의료교육

하이데라바드

- ▶ 더 나은 교육환경 개선
- ▶ 유아를 위한 보육서비스 향상
- ▶ 직업훈련 및 교육

칠리카

- ▶ 어린이와 청소년 모임 조직 및 결성
- ▶ 위생 및 보건 교육
- ▶ 어린이 교육 장려 및 활성화



HOT ISSUE

전 세계 최대 규모인 1억의 아동노동시장을 가진 나라, 인도.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만 약 5만 명, 인도 전체로는 약 1억 명의 14세 미만 아이들이 하루 10-20루피(약 250-500원)를 벌기 위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조차 할 수 없는 빈곤층 아이들은 아동 인신 매매조직에 끌려가 구걸을 하거나 도둑 또는 성 노예가 됩니다.

인도 정부가 2006년 아동노동방지법을 강화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인도의 CACT(아동 인신매매와 노예 반대 캠페인)에 따르면 2006~8년 사이에 노동에서 구조된 아이들은 128명뿐이라고 합니다.

다음 2010년 여름 소식지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이티 지진 발생 한 달, 플랜의 활동



2010년 1월 12일 화요일 오후 4시 53분 진도 7.3 리히터 규모의 강진이 아이티를 강타했다. 수도인 포르토프랭스 및 작멜과 같은 아이티의 남서부 및 중부 지역이 건물 붕괴 및 인명 피해 등 큰 피해를 입었으며, 2월 6일 기준으로 사망자는 20만 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도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랜 아이티는 지진 발생 수시간 이내에 구호활동을 시작했으며, 플랜 도미니카 공화국, 플랜 본부, 플랜 중남미 지역사무소 등과 함께 그 활동영역을 아래와 같이 넓혀가고 있다.

□ 식료품

- 기 관 :

지진발생 1주~2주 (세계식량계획 등의 기관의 정기적 식료품 보급이 가능해지기까지)

- 내 용 :

식량 보급 및 식료품 배포 (쌀, 청어, 정어리, 기름, 버터, 토마토 페이스트 캔 등)

- 수혜지역 : 작멜, 크루아데부께 등 서부지역

- 수혜자 : 총 10,600명



□ 아동보호

1. 심리사회적 지원

- 기 관 : 지진발생 2주~4주

- 내 용 :

심리사회치료 지원, 아동보호 구역 운영, 아동보호를 위한 청소년 및 성인 대상 훈련

- 수혜자 :

총 6,470명의 어린이



2. 인신매매 방지

- 기 관 : 지진발생

- 내 용 : 인신매매 방지 제휴, 인식증진 활동, 아동보호 포스터 제작, 아동 보호 지침 제작

- 수혜자 : 아이티 어린이



3. 교육

- 지진 피해 전 지역의 학교 실태 조사 참여
- 텐트, 세면용품 등 임시학교를 위한 물품 주문
- 유니세프 지원의 학용품 요청

□ 임시거처

- 기 관 : 지진발생 2주

- 내 용 :

약 2.1m X 2.1m 규모의 가족용 텐트 보급

- 수혜지역 :

작멜, 크루아데부께

- 수혜자 :

3,367가족 (총 13,910명)



□ 생필품(가족단위)

- 기 관 :

지진발생 1주~4주

- 내 용 :

가족용 생필품 키트 보급

- 수혜지역 :

작멜, 크루아데부께 등 서부지역

- 수혜자 :

3,473 가족 (총 12,712명)



□ 수도 및 보건위생

1. 수도 및 위생

- 내 용 : 급수시설, 샤워장, 공중화장실 및 쓰레기장 설치
- 수혜지역 : 남동부 및 서부 지역
- 32개 간이 화장실 중 13개 이미 설치
- 공중화장실, 급수시설, 샤워장 축조 계약 종료

2. 보건

- 내 용 : 구강수분 보충염, 살균제, 해열 진통제, 소염진통제 등 배포
- 수혜지역 : 서부 및 북동부 지역



제대로 먹지 못한 여동생을 안고 학교에 간 오빠를 기다립니다

Because I am a Girl

제2편 유아기 · 학령기

열심히 공부하면 부모님께서 학교를 계속 보내주실까요?



낙태의 위험에서 벗어나 출생된 여아들은 유아기 및 학령기에도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영양실조 및 영양결핍

남아시아 및 남미 등에서 여아들은 남아들에 비해 충분한 영양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남아시아 지역에서 남아들의 44%가 체중미달인 반면, 여아들의 47%가 체중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양실조로 인한 5세 미만 사망률도 여아가 더 높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서는 5세 미만 여아의 사망률이 남아보다 각각 11%, 12% 높다. 2000년 에콰도르에서는 영양실조로 인한 5세 미만의 사망이 남자는 69명, 여자는 91명이었고, 페루에서는 이로 인하여 사망한 남아:여아의 비율이 99:110이었다. 같은 해 우루과이에서 영양결핍으로 인한 사망률을 보면 여아 7명 당 남아 4명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집안일 및 학업중단

가정은 기본적으로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 처음으로 인간관계를 경험하는 곳이기도 하다. 즉, 아동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사회인 것이다. 하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사회적으로 여아들의 지위가 남자형제들보다 낮고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적다. 이는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이로 인해 여아들은 남아들보다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예를 들어 2000년에서 2007년 동안 기니 비사우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의 남자는 53%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반면, 여아는 단 37%만이 입학하였고, 파키스탄에서는 74%의 남아, 57%의 여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¹⁾ 뿐만 아니라, 여아는

만약 어머니가 형제를 출산하다 사망하게 되면, 나머지 형제들을 돌보게 되어 학업을 중단하게 된다. 어머니가 있더라도 집안일을 맡아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어린이들의 권리인 배울 권리와 놀 권리를 여아보다는 남아가 더 많이 누리는 것이다. 아래 에티오피아의 10세 여아의 말은 여아와 남아의 상황이 어떤지 보여준다.

“집안일을 하는 건 오로지 저 혼자예요. 밥도 짓고 여러 가지 집안일들을 돌보고 있는데, 남자형제들을 아무것도 안하고 밥만 먹고 또 나가서 놀아요.”

할례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 및 아시아의 몇몇 소수 민족 집단에서 여성 할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4세-12세의 여아가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여성 할례는 문화적 관습에 따라 가족과 여아의 명예를 위한다는 믿음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성 할례는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나 사망, 궤양, 패혈증, 파상풍을 일으킬 수 있고 환부가 부패하여 그 기능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여아들은 신체적 질병 외에도 극심한 고통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아들은 세상에 무사히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영양실조 혹은 영양결핍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집안일과 이에 따른 학업중단으로 교육받을 권리, 놀 권리를 누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또한 할례의 대상이 되어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도 한다. 

1) http://www.unicef.org/infobycountry/guineabissau_statistics.html;
http://www.unicef.org/infobycountry/pakistan_pakistan_statistics.html

1)을 제외한 본 내용의 자료는 플랜에서 2007년 발간한 **Because I am a Girl** 에서 발췌되었습니다.

플랜은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Because I am a Girl** 이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플랜코리아에서는 앞으로 여아의 출생, 유아기, 학령기, 성인기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차별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주)조이맥스 사회공헌 소개

나눔의 기쁨을 만끽하는 ‘기쁨 나눔’

“조이맥스의 1%의 능력이 99%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0여 명의 조이맥스 직원들은 모두 지난 2월 플랜코리아와의 협약식을 통해 르완다 등 동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지의 저개발국 아동들과 1:1 후원을 약속했다.

조이맥스가 본격적인 사회공헌에 나선지도 벌써 햇수로 네 번째, 2007년 7월 소박하게 첫 발을 댄 직원들의 작은 노력과 정성, 그리고 나눔의 기쁨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 순간이었다.





조이맥스는 ‘기쁨 나눔’이라는 자발적 사회봉사활동으로 사회공헌을 시작했다. ‘선한 기업’이라는 기업의 핵심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다.

처음 ‘기쁨 나눔’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10명 정도의 직원들이 번갈아 도배, 페인트칠 등을 진행하는 수

혜자 밀착 봉사활동으로 시작했다. 이어 성금 모금 활동인 ‘당신 급여의 1%가 할 수 있는 일’로 조이맥스가 위치한 가락본동 내 거주 소외 가정 자녀에 도움이 되는 진정한 기업 이웃이 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기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의지에서다. 조이맥스 직원들은 자원 봉사활동과 성금 모금을 통해 자신들이 사회에 양보한 짧은 시간과 급여의 일부를 재평가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특히 성금 모금은 지역 사회의 소외 이웃을 돕는 것을 넘어서 한국 소아암 재단을 통해 소아암 환아를 돕거나 월드비전의 긴급영양지원 사업에 동참하여 기아에 처한 아동의 영양 상태 개선 및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 8월부터는 이러한 사회공헌의 규모를 확대하고 임직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사내 카페테리아 이용 금액 전액이 성금으로 적립되는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바로 ‘사랑의 온도계’이다. 임직원들이 천 원짜리 음료1개를 사먹을 때 마다 천원의 성금이 적립되는 방식으로 직원들은 매일매일 마시는 음료수를 통해 따뜻한 온정을 베풀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이다.

조이맥스는 <실크로드 온라인>이 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지난 몇 년 간 글로벌 비즈니스를 통해 해외로부터 많은 매출을 올렸다. 이 또한 환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지구촌 어린이 희망 결연을 통해 본격적인 글로벌 사회공헌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됐다.

외롭고 구석진 곳을 찾아가 따뜻한 손을 내밀 줄 아는 진정한 기업 이웃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조이맥스는 더 큰 나눔과 사랑을 만들어 갈 것이다.



플랜의 홍보대사, 서아프리카 매너티를 소개합니다.

서아프리카 매너티 (West Africa Manatee)가 동물로는 국내 최초로 2009년 12월 10일 플랜코리아의 홍보대사가 되었다. 2009년 6월과 10월에 각각 한국으로 수송되어 온 두 마리의 서아프리카 매너티는 원 거주지인 아프리카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에서 공개되는 세계 희귀종으로 국제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코엑스 아쿠아리움의 매너티 수조 오픈식에 맞추어 홍보대사로 위촉된 매너티는 앞으로 매너티의 고향인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벌이게 된다. 귀엽고 친근한 모습의 매너티는 코엑스 아쿠아리움의 방문객 특히 어린이들이 아프리카와 구호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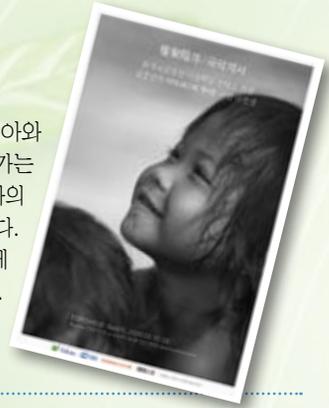
매너티들은 이미 아프리카 기니의 두 어린이를 각각 후원하고 있으며, 개체 수가 늘어날수록 후원 아동의 수도 늘어나게 된다. 매너티들의 후원을 통하여 두 어린이는 깨끗한 식수를 마시고, 예방주사를 맞고, 영양식을 제공받는 등 플랜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는 매너티 수조 앞에 모금함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이 플랜의 아프리카 구호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플랜코리아 소식

“플랜코리아와 김중만 작가와 함께하는 앙코르왓 사진전” 개최

2009년 12월 16일(수)부터 22일(화)까지 일주일간,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플랜코리아와 김중만 작가가 함께하는 앙코르왓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이를 위해 김중만 작가는 작년 4월, 캄보디아 앙코르왓트를 방문하여 대규모 사진작업을 진행하였고, 플랜코리아의 활동지역을 방문하여 어린이들에게 사진을 찍어 주며 뜻 깊은 추억을 만들어준 바 있다. 사진전에서는 사진 64점이 전시되었으며, 사진의 수익금을 전액 플랜코리아에 기부하였고, 이는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에 미술학교를 건립하는 데에 사용된다. 사진전은 후원자 및 일반인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고, 플랜코리아의 홍보대사인 산악인 엄홍길과 탤런트 고은아도 참석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하였다.



오승수 후원자, 휴먼네트워크상 수상

12월 15일, KBS와 보건복지가족부의 공동 주최로 진행된 ‘제1회 대한민국 휴먼대상 시상식’에서 플랜코리아의 오승수 후원자가 휴먼네트워크상을 수상하였다. 오 후원자는 2004년부터 플랜코리아를 통해서 방글라데시 아동 프로산토(현재 16세)를 후원하고 있으며, 2005~2009년까지 매년 후원아동을 방문하였다. 또한 후원아동과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데에도 힘을 쓰고 있다. 오 후원자의 활동은 후원아동인 프로산토에게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여,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휴먼네트워크상을 수상하였다.



해외아동후원, 무료로 할 수 있다!

중고차사이트 카즈(<http://www.carz.co.kr>)가 개발도상국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해외아동후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카즈 홈페이지에 사용자가 ‘중고자동차 판매 또는 구입문의’를 남기면, 그 수만큼 매월 일정금액을 후원하기로 한 것이다. 문의글을 남기는데 1인당 횟수 제한은 없고, 동일인이라도 다른 차량을 문의한다면 여러 건으로 인정되며, 매월 진행된다. 후원에 참여한 사용자들은 자동차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받으면서도, 개발도상국의 어린 아이들과 결연이 되어 도움을 주는 뜻 깊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플랜코리아 홍보대사 김중만, '마크 오브 리스펙트' 수상

2010년 ‘마크 오브 리스펙트(Mark of Respect)’ 수상자로 플랜코리아 홍보대사인 김중만 사진작가가 선정되었다. 김중만 작가는 뛰어난 예술성을 발휘하는 동시에, 2005년부터 플랜코리아의 홍보대사로서 아프리카 어린이 후원에 앞장서면서 ‘혜택 받은 삶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는 진정한 예술인으로 평가 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김중만 작가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5000만원이 주어졌고, 상금은 수상자의 희망에 따라 플랜코리아에 전액 기부되어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의 골대 짓기’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플랜 지구촌 소식

플랜의 청소년 기자단,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활동하다

플랜에서 미디어 기술을 훈련받은 세계 각지의 청소년들이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케냐,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에서 온 어린이 기자단은 영국의 에너지부 장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성공회 대주교 테스먼드 투투, 케냐의 환경부 장관 등을 인터뷰했다. 특히 가뭄으로 수백만 명이 위협받고 있는 케냐의 농촌에서 온 12세 조세프는 케냐의 환경부 장관인 존 미츠킨와의 인터뷰 이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그의 사무실로 초청을 받았다. 인터뷰 장면은 네덜란드에서 온 청소년 기자단의 마리우스가 촬영하였고 영국공영방송 BBC 온라인에 게재되었다.



페루, 홍수와 산사태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다

페루, 쿠스코 지역에 1월 23일부터 내린 폭우로 빌카노타 강, 우아타나이 강, 하투마요 강이 범람하였고, 산사태마저 발생하여 수리테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밖에도 퀴스피칸치스 주의 우아카르파이 읍내는 모두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페루 민방위 본부에 따르면, 7명이 사망했고, 9천 명의 주민들이 집을 잃었다고 한다. 플랜은 우아카르파이와 수리테 지역에 500개의 임시 대피소 세트 배포, 대피소 내 어린이들을 위한 따뜻한 옷가지 지급, 급수 펌프 설치 등의 구호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르키나 파소 어린이들, 깨끗한 학교를 되찾다

2009년 9월 홍수로 15만 명이 집을 잃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던 부르키나 파소의 길원 학교의 환경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기 힘들어 할 정도로 좋지 않았다. 학교가 임시대피소로 쓰인 후 환경이 매우 더러워지고 파손되었기 때문이다. 12살의 비바는 “처음엔 우리학교인 줄 몰랐어요.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났거든요.” 라며 그 때 당시를 회상했다. 크리스마스 방학을 맞아 플랜 부르키나 파소는 학교의 환경미화하는 물론 새로운 교구들을 비치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새해부터는 깨끗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했다. 11살의 다우두는 “천장도, 창문도, 벽도, 칠판도, 의자도 모두 새 것이예요.” 라며 기뻐했으며, 첫 날 학생들은 들떠있는 모습을 보였다. 플랜은 홍수 당시 긴급구호 작업을 벌였으며 현재는 홍수 후 재건에 힘쓰고 있는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있다.





STOP CHILD POVERTY!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빈곤을 막아주세요.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빈곤을 막아주기 위해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운재 골키퍼와 스페인의 대표 골키퍼 이케르 카시야스가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플랜코리아 홈페이지 (www.plankorea.or.kr) 에서 확인해주세요.

